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 한 인지적 분석

李 鑣 煥
釜山大學校 心理學科

본 논문에서는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관련된 요인이나 인지과정을 찾기 위해 인지적으로 접근한 최근의 실험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에 깔려있는 인지과정을 직접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단 하나(Weber & Crocker, 1983)였다.

본 개관의 결과, 피험자들의 자기-제시 동기가 피험자로 하여금 고정관념-검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병용(동등 기회) 책략을 사용하도록 만듦을 알았다. 집단의 구성원들을 개성화시키면, 우리의 고정관념적 신념이 우리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인상을 형성하거나 판단하는데 영향을 덜 미치게 할 수 있음도 알았다. 그리고, Weber와 Crocker(1983)는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에 깔려 있는 인지과정을 이해하는데에 Bookkeeping 모델(예, Rothbart, 1981)과 Subtyping 모델(예, Taylor, 1981)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추후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 과정 상에 있는 時繼들(sequences)이 더 구명되어야 한다. 가능한 時繼들 중의 하나로 "상반되는 증거(또는 다른 관련 요인들)→의집단 동질성의 지각의 변화→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의 時繼를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해오고 있는 고정관념의 핵심적 의미는 어떤 인간 집단의 개인적 속성에 관한 신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Ashmore & Del Boca, 1981). 본 논문에서는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적 신념을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고정관념에 대한 접근은 사회·문화적 접근, 정신역학적 접근, 그리고 인지적 접근으로 대별된다(Ashmore & Del Boca, 1981). 고정관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사회·문화적 접근과 정신역학적 접근을 취했다. Ashmore와 Del Boca(1981)에 의하면,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고정관념이 집단 수준에서 분석되었고, 과정보다는 내용이 더 강조되었다. 이 접근에서는 고정관념화가 사회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실제로 개인이 고정관념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별

로 나오지 않았다. 정신역학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편견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으며, 고정관념은 편견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구실을 하는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이 접근에서는 개인의 심리과정이 중시되기는 했지만, 연구자들이 고정관념에 관련된 동기적 요인만을 강조하고, 지각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들은 소홀히 하였다. 세 접근에 대한 Ashmore와 Del Boca (1981)의 논평에 의하면, 세 접근 중에서 고정관념에 관련된 과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지적 접근이다.

고정관념이 인지적으로 연구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Tajfel(1969)은 “Cognitive aspects of prejudice”를 발표함으로써 심리학자들이 고정관념을 인지적 관점에서 연구하도록 만드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Ashmore & Del Boca, 1981).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본격화 즉,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고정관념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5년 4월 Carnegie-Mellon 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11차 인지 심포지움(주제: 인지와 사회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심포지움에서 Hamilton은 “Cognitive biases in the perception of social groups”(1976)를 발표했다. 그 후 이에 동조하는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접근을 통한 고정관념의 연구를 계속하였고, 그 결실의 하나가 Hamilton이 편집한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1981a)이다. 여기에 수록된 연구들은 고정관념적 신념의 형성 또는 유지에 영향을 주는 지각적, 인지적 요인들과 인지과정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려는 심리학자들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물음은 “기존의 신념(또는 스키마, 기대)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될 것이다. 기존의 신념과 새로운 정보 간의 관계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다. 그런데, 기존의 신념이나 기대가 새로운 정보의 처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새로운 정보 특히 상반되는 증거가 기존 신념의 수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 이러한 물음은 귀인 영역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고(Kelley & Michela, 1980), 고정관념 연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Hamilton, 1981b; Weber & Crocker, 1983). “사회 인지 영역에서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용의성(readiness)에 관한 것이다”(Kruglanski & Freund, 1983, p.448).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한 片의 정보가 어떻게 신념의 형성 또는 수정의 기초로 사용되는지를 예언해 줄 단일하고 간단한 규칙들이 없다”(Rothbart, 1981, p. 150).

본 논문은 고정관념에 대한 최근의 인지적 연구들을 개관함으로써, 고정관념

적 신념의 변화에 기여할 요인과 인지과정을 찾으려는 하나의 시도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첫째, 고정관념적 신념을 잠정적으로 일종의 가설로 취급하여(Snyder, Campbell, & Preston, 1982 참조), 일반인의 가설 검증과 과학적 가설 검증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둘째, 일반인의 가설 검증 전략(strategy)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관한 것, 셋째, 고정관념적 신념이 표적집단(target group)의 개인 구성원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기제를 찾으려는 것, 넷째,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깔려 있는 인지과정을 확인하려는 것, 그리고 다섯째,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와 관련된 차후의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I. 일반인의 가설검증과 과학적 가설검증

고정관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접근을 취하든지, 고정관념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고, 잘 변화되지 않는 신념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인지적 조망에서는 고정관념화의 과정이 인간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인지과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망에서는 정보처리자로서의 인간의 역량(capacity)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예,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도 인간의 합리성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로 이해한다.

만약 일반인의 가설 검증이 과학적 가설 검증과 같이 외현적으로 명시된 규칙과 절차들을 좇고, 증거에 의해서만 가설의 기각 또는 수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고정관념의 문제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인의 가설 검증을 과학적 가설 검증에 대비시켜봄으로써, 일반인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인지과정이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설의 설정

고정관념 형성의 순수한 인지적 기초로 범주화(categorization)(Tajfel, 1969; Taylor, 1981)와 착시적 상관(illusory correlation)(Hamilton, 1981b), 그리고 일반화(Quattrone & Jones, 1980)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설 설정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가설이 설정된 이후의 과정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고정관념적 신념을 일종의 가설이라고 상정할 때, 우리는 일반인들이 가설을 공식화하여 진술하는 방식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Rothbart(1981)가 예로 들고 있는 여성에 대한 한 가상적인 고정관념적 신념을 보자. "여성은 운전이 쉽다"라는 일상 언어로 표현되는 진술문은 (a) P(쉽하게 운전함/여성 운

전자) > P(힘하게 운전함/남성 운전자) 인지, (b) P(힘하게 운전함/여성 운전자) > .50 인지, 또는 단순히 (c) P(힘하게 운전함/여성 운전자) > 0 인지가 불분명하다. “여성은 운전이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자신의 고정관념이 상기한 a, b, c 중의 어느 것인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지 않은 채로 몇몇 여성만을 관찰하고서 그 여성들이 힘하게 운전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상상해 보자. 이 때의 증거는 c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a나 b 가설을 지지해 주기에는 불충분한 증거이며, 증거 수집의 방법(예, 소수의 여성만을 관찰한 것) 자체가 a나 b 가설을 지지하거나 기각하는 증거를 얻기에 부적절한 것일 수 있다.

또한, Rothbart(1981)는 Peabody(1968)의 연구를 인용하여, 중국인과 일본인이 각기 자기들의 집단을 기술하는 평가적 어휘에 대해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예시하였다. 두 집단이 모두 자기들이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행동적 기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두 집단이 각기 “자기들은 검소하고, 그들은 인색하다”라고 평가적 어휘를 다르게 붙이고 있다. 우리가 행동을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특성 형용사(trait adjective)와 같은 일상의 단어들인 실제로는 행동 자체를 기술한다기보다는 행동의 복잡한 흐름을 요약한 것이며, 그 단어의 내용에는 행동의 기술, 원인의 귀속, 그리고 평가적 판단이 혼합되어 들어 있는 것이다. “특성으로 기술하는 것이 추론과 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ampbell(1967)이 말하는 ‘현상적 절대주의(phenomenal absolutism)에 빠지고 만다. 현상적 절대주의란 우리가 귀인한 것(예, 게으름, 지성, 인색 등)을 자극 대상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보지 않고, 자극 대상 안에 실재하는 질(quality)이라고 보는 경향성을 의미한다”(Rothbart, 1981, p.152).

과학적 가설 검증에서는 검증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설 자체를 분명하게 기술한다.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적 신념이 수정되거나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내용을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의 분리

“과학적 추론의 제일 요건은 가설 설정과 검증 간의 엄격한 분리다. ……… Hans Reichen은 그와 같은 분리로서 ‘발견의 맥락’과 ‘입증의 맥락’을 구분하고 있다”(Rothbart, 1981, p.147). 일반인의 인식론적 과정에도 가설 설정의 단계와 가설의 평가 또는 타당화(validation)의 단계가 필요하게 마련이다(Kruglanski & Freund, 1983). 그런데,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일반인들의 기존 신념이 새로운 정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설정된 가설이 그 가설을 지지

하거나 기각하는데 소용될 증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된다. 일반인의 일상적인 인지과정 자체에는 가설 설정과 증거 수집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적 신념이 변화되기 어려운 또다른 이유의 하나가 된다. 일반인들의 가설 설정과 검증 간에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음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 가설 검증의 세부적 측면

수집할 자료의 종류 일반인의 인지 과정 상에서 가설 설정과 검증 간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인들은 가설 검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 가설을 확인해 줄 증거를 더 선호한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때 가설을 확인해 주는 사례를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nyder & Swann, 1978; Snyder & Cantor, 1979).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명제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에도 개인들은 명제를 확인해 주는 실례들(confirming instances)을 찾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Wason & Johnson-Laird, 1972).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잠정적으로 형성해 놓은 개념을 확인해 주는 사례를 보다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일상적인 인지 과정 상의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학적 추론 과정에서는 통제 집단을 반드시 두도록 하여 통제 자료를 얻고 있다. 과학에서도 통제 집단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다. “처치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등하게 무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R. A. Fisher에게 공적을 돌려야 할 20세기의 혁명적인 생각이다. 가설은 증거에 의해 부정될 수(disconfirmed) 있을 뿐이고 결코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Popper(1959)의 견해도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받아들여졌다”(Einhorn & Hogarth, 1978, p.399).

사례의 해석 실례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체계적 편파(bias)의 한 요인은 판단자나 지각자가 이미 갖고 있는 가설(고정관념 기대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적 신념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례를 해석한다. 귀인(attribution)은 고정관념적 신념에 부합되게 사례를 해석하게 만드는 한 기제다(Kulik, 1983; Crocker, Hannah, & Weber, 1983; Pettigrew, 1979). 일상 용어로 진술되는 고정관념적 신념의 모호성 때문에도 사례의 해석이 임의적이 될 수 있다. 가설 설정 단계에서도 예시했듯이 고정관념적 신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사례를 그 신념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해석할지 그 신념에 상반되는 증거로 해석할지가 매우 임의적으로 될 수 있다.

요약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인지적 측면에서 찾아 본다면 첫째, 일반인의 고정관념적 신념이 일상 용어로 진술될 때 그 의미가 애매하기 쉽다. 이러한 애매성은 신념의 수정이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증거의 수집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일반인의 추론 과정에서는 가설의 설정과 검증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일반인의 추론 과정에서 가설 설정과 검증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가설 검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가설을 확인해 줄 자료를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넷째, 일반인의 자료 해석에는 가설이 영향을 미친다. 가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자료 해석을 유도하는 기제의 하나가 귀인이다.

II.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 과정을 구명하는데 있어서의 중심 문제는 인간이 기존의 고정관념적 신념에 상반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기존 신념과 그에 상반되는 정보간의 문제를 기억 과정에서 밝히려는 연구들(예, O'Sullivan & Durso, 1984)이 있다. 본 개관에는 고정관념적 신념과 관련된 기억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포함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연구들은 기존 신념에 상반되는 정보의 획득에 관련된 것과 상반되는 증거에 의해 고정관념적 신념이 수정 또는 변화되는데 깔려 있는 인지 과정에 관한 것이다.

1. 확인적 가설 검증의 사례

고정관념의 수정 또는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관념에 상반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가설을 확인해 주는 증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짙다. Snyder와 그의 동료들은 확인적 가설 검증의 한계(limits of confirmatory hypotheses testing)를 찾으려는 일련의 실험을 하였다(Snyder, 1981 참조). 그들 실험의 기본 패러다임은 피험자가, 앞으로 면접할 피면접자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면접에서 사용할 질문을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질문에는 어떤 가설을 확인해 주는 증거를 이끌어내는 질문이 반, 가설을 부정해 주는 증거를 이끌어내는 질문이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험자가 가설을 검증할 때 확인적 증거를 찾으려는 전략을 확인적 가설 검증 전략(confirmatory hypotheses testing strategy)이라 한다. 확인적 증거와 부정적 증거를 동등하게 찾으려는 전략을 병용(또는 동등 기회) 전략(equal opportunity strategy)이라 하고, 부정적 증거를 찾으려는 전략을 부정적 가설 검증 전략(disconfirmatory hy-

potheses testing strategy)이라 한다. Snyder와 Swann(1978)은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사람들이 병용(또는 동등 기회) 책략, 또는 부정적 가설 검증 책략을 사용케 만드는 요인을 찾으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결과는 실패였다. 실험 1에서는 가설의 출처(origin)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설이 표적 인물의 실제 행동(실제 성격 검사의 프로필로 제시)에서 유래된 것인지, 단순한 가설적 기술로 제시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피험자들은 확인적 가설 검증 책략을 사용하였다. 실험 3에서는 가설의 확실성(certainty)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확실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30명 중 23명이 외향적인 여학생 寮(sorority)에 속하는 한 여학생이 외향적일 것이냐를 물었고, 낮은 조건에서는 30명 중 7명이 외향적인 여학생 寮에 속하는 한 여학생이 외향적일 것이냐를 물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가설의 확실성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피험자들은 확인적 가설 검증 책략을 사용하였다. 실험 4에서는 피면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데 가장 적절한 질문을 채택하는 사람에게는 25불을 상금으로 준다는 지시를 주었으나, 이런 유인물도 확인적 가설 검증 책략의 선호 경향성을 누르지 못했다. Snyder와 Swann(1977)은 가설을 세울 때, '피면접자가 외향적일 것이다' 또는 '피면접자가 내향적일 것이다'라는 형태로 하지 않고, '피면접자가 외향적일까 또는 내향적일까'와 같은 형태로 세우도록 하면 책략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즉, 가설을 경쟁시키면 병용(동등 기회) 책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가설을 경쟁시킨 경우에도 외향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더 많이 선택되었다. 가설을 경쟁시킨 경우 피험자들이 왜 (내향적인 사람인지가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더 많이 선택했는지에 대해 Snyder와 Swann(1977)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을 특징지우는 구체적 행동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을 특징지우는 구체적 행동을 상상하기가 쉬운지 모르며, 내향적 행동보다 외향적 행동을 생각해 내기가 쉬운 것이, 가설이 경쟁되는 경우, 피험자들로 하여금 외향적인 행동을 확인해 줄 질문을 더 많이 선택하게 한 것일 수 있다. Snyder와 Campbell(1980)은 피험자가 가설을 설정하기 전에, 외향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외향성에 전형적인 속성들(예, outgoing)을 갖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향성에 전형적인 속성을 갖지 않는(예, not shy) 사람이라고 알려 주었다. 내향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피험자들은 확인적 증거를 찾으려는 질문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Snyder, Campbell 및 Preston(1982)은 피험자의 자기-제시(self-presentation)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병용(동등 기회) 책략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자기-제시 동기 유발은 지시문을 통하여 했는데 "...피면접자도 역

시 당신이 묻는 질문들을 토대로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질문에 따라...당신이 마음이 트인(open-minded)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또는 마음이 막힌(closed-minded)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p.267)라는 말을 함으로써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피험자들이 병용(동등 기회) 책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성화(individuation)

범주화의 결과만으로도 사람들은 외집단은 내집단과 다르다고 보며, 또한 외집단은 동질적이라고 간주한다(Allen & Wilder, 1979; Wilder, 1980; Brewer, 1979). 따라서, 외집단의 구성원은 내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더욱 비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로 지각된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독특한 정보는 그 개인에 대해 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견해를 갖게 해 준다(Wilder, 1978). 외집단 구성원의 개성화가 편향(bias)의 감소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외집단 구성원들을 개성화함으로써 단순히 외집단을 동질적인 한 단위로 지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외집단 구성원을 개성화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어 자기자신과 외집단 구성원 개개인과의 유사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셋째, 개성화된 외집단 구성원에 주의를 하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기가 쉬우므로 공감할 수 있다(Wilder, 1981). “만약 범주를 만들지만 해도 집단 간 편파를 생성시킬 수 있다면, 내집단-외집단 범주화를 변경시키는 기법들도 그와 같은 편파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Wilder, 1981, p.235).

Locksley와 그의 동료들은 집단의 구성원을 개성화함으로써 고정관념적 신념이 그 개인을 판단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우리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덜 고정관념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고정관념적 신념에 상반되는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Locksley, Borgida, Brekke 및 Hepburn(1980, 실험 1)은 피험자들에게 표적 인물의 성(남, 여, 무정보)과 세 가지 행동 장면에서의 행동(주장적 행동, 수동적 행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서 표적 인물에 대한 특성을 평정시켰다. 특성 평정을 위해서는 Bem(1974)의 성역할 항목표의 남성성과 여성성 척도를 구성하는 40개의 성격차원의 특성들을 사용하였다. 표적 인물의 성이 고정관념적으로 연합된 특성을 표적 인물에 귀속시킬 확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의외로 이 가설은 실험 결과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였다. Locksley 등(1980)은 이러한 결과가 예언 과제에서 준거에 대해 진단적인 사례 정보(예, 주장적 행동 또는 수동적 행동)가 있을 때 사전 확율(예, 여성은 수동적, 남성은 주장적)이 무시되는 현상과 동일함을 논의하였다.

Locksley 등(1980, 실험 2)은 피험자에게 여섯 표적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주장성(assertiveness)의 정도를 물었다. 사전에 남, 여 집단의 주장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신념을 백분율(예, 남<여>성 중 주장적인 남<여>성의 백분율)로써 측정하였다. 표적 인물에 대한 특성 평정도 백분율(예, 어떤 표적 인물이 생활해 오는 동안 결코 주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었다<0%>……늘 주장적인 행동을 해 왔다<100%>)로써 측정하였다. 표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성(남, 여)과 주장적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표적의 사례 정보(없음, 비진단적, 진단적)이었다. 실험의 결과를 보면, 표적 인물에 대한 사례 정보가 진단적인 조건에서만 성 고정관념적 신념의 영향이 없었다.

Locksley, Hepburn 및 Ortiz(1982a, 실험 1)는 “주행성인 사람들(diurnal)”과 “야행성인 사람들(nocturnal)”에 대한 8개의 고정관념적 신념(특성)이 개인에 대한 판단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도 신념들과 판단은 모두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사례 정보가 없는 조건, 낮은 진단적 정보가 추가된 조건(예, 야행성인 사람들은 반항적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인데, 어떤 개인이 반항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는 정도가 미약한 정보가 추가된 조건), 그리고 높은 진단적 정보가 추가된 조건(예, 야행성인 사람인데 반항적인 행동을 해 오지 않았다)에서 개인에 대한 판단을 알아 보았다. 결과를 보면, 낮은 진단적 정보가 추가된 조건과 높은 진단적 정보가 추가된 조건에서 모두 고정관념적 신념이 개인의 특성 평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Grant와 Holmes(1981)는 한편에서는 인종 명칭(ethnic label)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을 기술한 특성들이 각기 특정한 인지적 스키마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가정하고, 타인에 대한 인상 형성을 위해 피험자들이 이 두 스키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의 결과는 개인을 기술한 성격 특성의 효과보다는 인종 정보의 효과가 더 컸음을 보여주었다. Locksley 등(1982b)은 Grant와 Holmes(1981)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기존 연구 결과들(Locksley 등, 1980; Locksley 등, 1982a)과 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이런 비평에 대한 Grant와 Holmes의 답변은 Grant & Holmes, 1982 참조).

Nisbett, Zukier 및 Lemley(1981)는 비진단적이지만 집단구성원을 개성화하는 적은 양의 정보가 집단 명칭의 형태로 주어지는 진단적 정보의 효과를 희석시킴(dilute)을 증명하였다. Nisbett 등(1981, 연구 1)은 피험자로 하여금 공학 전공자 집단(또는 개인)과 음악 전공자 집단(또는 개인)의 전기 충격 인내도를 예언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예과 학생 집단(또는 개인)과 영어 전공 학생 집단(또는 개인)의 영화 감상 횟수를 예언하도록 하였다. 한 실험 조건에서는 대상 인물의 첫 이름과 끝이름 첫자, 전공, 직업 계획만을 녹화된 면접

장면을 통해서 알려 주었다. 다른 조건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예비조사 결과 전기 충격 인내도나 영화감상 횟수 예언에 비진단적임이 판명된 배경 정보(예, 부의 직업, 자신의 종교 등 인구적 정보)를 주었다. 실험의 결과는 전기충격 인내도와 영화 감상 횟수에 대한 예언에서 모두 비진단적인 정보가 진단적 정보의 효과를 현저하게 희석시켰다. 전기충격 인내도를 예를 들어 부연 설명하면, 공학 전공자에 대한 전기충격 인내 추정치에서 음악 전공자에 대한 전기충격 인내 추정치를 뺀 것을 다시 두 추정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가지고 두 실험 조건 간에 비교하였다. 진단적인 정보만 제시했던 조건에서는 그 비율이 약 .30 이었고, 비진단적 정보가 추가된 조건에서는 그 비율이 약 .15 이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의의있었다.

Kruglanski와 Freund(1983, 실험 2)는 시간 제약(높음 대 낮음)과 평가 우려(높음 대 낮음)를 교차시킨 네 실험 조건에서 교사 자격증 받기 1개월 전의 사범대 학생들에게 8학년 학생들의 작문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8학년 학생들의 인종에 관한 정보를 줌으로써 인종적 고정관념이 작문 평가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를 보면, 시간 제약이 적을 때에 비해 시간 제약이 많을 때에는 고정관념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시간 제약이 적고, 평가 우려가 높을 때 고정관념의 영향이 가장 적었다.

3.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에 있어서의 인지과정

여기에 소개될 연구들은 고정관념적 신념이 그에 상반되는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직접 다룬 것들이다. Gurwitz와 Dodge(1977)는 실험에서 대학교의 한 여학생寮(sorority) 회원들로서 4인용 집에서 기거하는 4명을 가상적으로 정해 놓고, 그 중 3명에 대한 정보를 피험자에게 알려 준 후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3명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에 따라 실험조건이 넷이었다. 고정관념적 신념에 부합 또는 상반되는 행동으로 기술한 조건과 부합 또는 상반되는 정보를 1명에게 집중시키거나 3명에게 분산시킨 조건의 교차에 의해 네 개의 실험 조건을 만들었다. 한 사람의 특성을 성격 특성으로 기술하지 않고,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한 성격 특성에 부합하는 3개의 행동적 특성으로써 기술하였다. 집중 유형에서는 1명이 고정관념과 부합 또는 상반되는 3개의 행동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해 놓았고, 2명은 3개의 중성적인 행동적 특성으로 기술해 놓았다. 분산 유형에서는 3명이 1개의 부합 또는 상반되는 행동적 특성과 2개의 중성적인 행동 특성을 갖는 것으로 기술해 놓았다. 이러한 정보는 5페이지로 된 소책자를 통해 제시했는데, 한 페이지에 한 명씩 적어서 제시하였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험자가 나머지 한 명에 대한 그의 판단을 적게 했다. 실험의 결과를 보면,

상반되는 정보가 3명 중 1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나머지 한 명에 대해 가장 덜 고정관념적인 판단을 하였다.

Weber와 Crocker(1983)는 Gurwitz와 Dodge(1977)의 실험 파라다임을 채택하여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관한 세가지 이론적 모델-Bookkeeping 모델, Conversion모델, 그리고 Subtyping모델-을 비교하였다. Bookkeeping 모델(Rothbart, 1981; Rumelhart & Norman, 1978)에서는 고정관념의 변화를 고정관념에 관련된 낱말의 정보가 모두 현재의 고정관념을 수정하는데 사용되는 점증적 과정으로 본다. 한 개의 상반되는 정보라도 적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체계적으로 어긋나는 상반되는 정보가 많이 누적되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Conversion모델(Rothbart, 1981)에서는 고정관념의 변화를 실무울적 과정으로 본다. 즉, 고정관념은 극적인 실례들에 의해서 급작히 변화하는 것이며, 경미하게 상반되는 정보 앞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Rothbart(1981)는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격차(discrepancy)에 대한 개인의 자각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특정한 예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면, 부정적 실례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Subtyping모델(Ashmore, 1981; Brewer, Dull, & Lui, 1981; Taylor, 1981)은 고정관념을 경험에 의해 생겨나는 한 위계적 구조로 본다. 집단에 대한 최초의 지식은 어떤 특성이 집단 전체에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상위 고정관념으로 표상된다. 이에 어긋나는 정보가 획득되면, 집단 내에 변별이 생겨서 하위 고정관념이 발달된다. 하위 고정관념들이 다양해질 수록 집단 전체에 부여하는 상위 고정관념적 특성은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는 고정관념의 변화를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의 분화로 보며, 사람들은 언제나 고정관념을 갖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하위 고정관념도 고정관념이기 때문이다.

Weber와 Crocker(1983, 실험 1)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상반되는 정보의 양과 유형, 그리고 표집 크기의 효과로써 세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험설계는 2×2×2요인 설계로, 그 요인들은 직업(사서, 변호사), 상반되는 증거의 유형(집중, 분산), 그리고 표집의 크기(6명, 30명)였다. 종속변인은 표집의 인물들을 기술하는데 행동적 특성으로 제시되었던 성격 특성에다 제시되지 않았지만 고정관념적 특성이 되는 몇 개를 더 추가하여 그 직업 사람들 일반에게 얼마나 특징적인지를 11점 척도에 평정시켜서 측정하였다. 그 집단의 다른 한 개인에 대한 평정도 받았다. 표집의 사람들을 분류하도록 하는 Subtyping과제도 주었다. Conversion모델은 집중 유형에서 피험자들이 덜 고정관념적인 평정을 할 것이라 예언하며, Subtyping모델은 분산 유형에서 피험자들이 덜 고정관념적인 평정을 할 것이라 예언한다.

Bookkeeping 모델은 유형에 따른 예언은 하지 못하고, 표집 크기의 주효과, 즉 큰 표집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덜 고정관념적인 평정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작은 표집 조건에서는 집중-분산 유형의 효과에 차이가 없었고, 큰 표집 조건에서 분산 유형이 집중 유형에 비해 덜 고정관념적인 평정을 하도록 효과를 내었으며(Bookkeeping 모델 지지), 하위 집단의 수도 많았다(Subtyping 모델 지지).

Weber와 Crocker(1983, 실험 2)는 고정관념에 상반되는 정보의 상반되는 정도가 클수록 고정관념의 수정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상반되는 정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30명 중 9명이 각기 1개의 상반되는 행동과 2개의 중성적 또는 부합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기술하였고, 상반되는 정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30명 중 9명이 각기 3개의 상반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극단적(높은) 상반 조건의 피험자들이 덜 고정관념적인 평정을 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상반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집단(예, 변호사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예, 변호사이지만 흑인이고, 연수입이 약 15,000불 정도—인구적 특성에서 비대표적인 속성임) 경우에는, 대표 하는 경우(예, 변호사로 백인이고 연수입이 약 30,000불)에 비해서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에 영향을 못미친다(Weber & Crocker, 1983, 실험 3), 종합적으로 보면, Weber와 Crocker(1983)의 실험 결과는 대체로 Bookkeeping 모델과 Subtyping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이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관련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반인들이 확인적 가설 검증 채택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의 출처, 가설의 경쟁, 가설의 확실성, 그리고 적합한 가설 검증을 위한 질문에 주는 유인물 등이 모두 확인적 가설 검증 채택의 선호 경향성을 누르지 못함을 알았다. 다만, 피험자의 자기-제시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피험자가 병용(동등 기회) 채택을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둘째, 집단 구성원들을 개성화함으로써 구성원들 개개인에 대한 판단에 고정관념적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개인을 고정관념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정보라도 그것이 개인을 개성있는 존재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Nisbett 등, 1981 참조). 그리고, 판단자에게 시간의 제약이 없거나, 평가 우려가 높으면 역시 고정관념적 신념의 영향이 감소됨을 알았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고정관념적 신념이 극적인 실패들에 의해서 급작히 변화될 수 있다는 Conversion 모델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실험

결과에 의존한다면, **Bookkeeping**모델이나 **Subtyping**모델이 제시하는 바의 과정에 의해서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상반되는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러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수정하게 하는데 효과가 클 수 있다.

Ⅲ. 논 의

비단 고정관념적 신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념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변화시키기 힘들다. 실험 상황에서도 실험자가 피험자로 하여금 최초로 신념을 형성하게 만든 후, 다시 그 신념의 바탕이 된 자료가 허위로 조작된 것임을 충분히 해명해(debriefing) 주더라도, 피험자들은 그 신념을 그대로 유지시키려 한다(Anderson, 1983). 본 논문은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자주 수정하기보다는 일관된 신념이나 신념체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다만 본 개관에 포함된 연구들을 통해서, 인지적 측면만을 고려한 경우에도 일반인의 고정관념적 신념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가를 독자들이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관에 의하면, 상반되는 증거에 의해서 고정관념적 신념이 변화하는데 깔려 있는 인지과정을 실험적으로 구명한 것은 Weber와 Crocker(1983)의 연구가 유일한 것이다. 본 개관에 포함된 다른 연구들은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성립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들 즉,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신념에 상반되는 증거에 접하도록 하는데 관련된 것이었다.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관련된 전 과정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기존 신념에 상반되는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까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더라도 Weber와 Crocker(1983)의 연구처럼, 사람들이 일단 상반되는 증거에 접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인지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고정관념적 신념이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Weber와 Crocker(198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는 경미하게 상반되더라도 기존 신념에 상반되는 증거들이 많이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밝거나, 상반되는 증거들이 집단을 여러 하위 범주로 분화시킬 수 있게 해줄 때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상반되는 증거라도 집단을 여러 하위 범주로 분화시킬 수 있게 하지 못하고 두드러지는 하나의 하위 범주만을 생성시키는 경우는 그 하위 집단이 “예외”로 취급될 뿐

이고 기존의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Weber와 Crocker(1983)의 결과에서 상반되는 증거가 큰 표집(30명)의 1/3에 해당하는 인원내 집중되어 있는 경우(한 개인이 3개의 상반되는 특성을 가짐)보다는 큰 표집의 전 인원내 분산되어 있는 경우(한 개인이 한개씩의 상반되는 특성을 가짐)에 피험자의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가 더 컸음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적 신념이 상반되는 증거에 의해서 직접 변화한다기보다는 고정관념적 신념 형성의 한 기초가 되는 외집단 동질성에 대한 개인의 가정이 변화하고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가 그에 수반할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사람들이 내집단(ingroup)에 비해 외집단(outgroup)이 더 동질적이고 덜 분화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외집단 동질성의 지각이라고 한다. 외집단 동질성의 지각은 고정관념적 신념 형성의 한 기초가 되며(Quattrone & Jones, 1980), 고정관념적 신념이 自家-永續的(self-perpetuating)이게 하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Park & Rothbart, 1982). 특히 Park와 Rothbart(1982)는 외집단 동질성에 대한 우리의 지각에 변화가 생길 때, 그 집단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감소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를 다루는 차후의 연구 과제 중의 하나로서 변화 과정 상의 時繼(sequence)를 확인하는 과제를 필자는 제안하고자 한다. 고정관념적 신념은 독립되어 있는 신념이기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거나 그것에 연합된 다른 신념들이나 생각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고정관념적 신념에 상반되는 증거들이 누적되면 외집단 동질성의 지각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고정관념적 신념이 변화하는 한 時繼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외집단 동질성의 지각을 변화시키는 요인들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llen, V. L., & Wilder, D. A. Group categorization and attribution of belief similarity. *Small Group Behavior*, 1979, 10, 73-80.
- Anderson, C. A. Abstract and concrete data in the perseverance of social theories: When weak data lead to unshakeable belief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83, 19, 93-108.
- Ashmore, R. D. Sex stereotypes and implicit personality theory.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Ashmore, R. D., & Del Boca, F. K.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Bem, S. 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 Clinical Psychology*, 1974, 42, 155-162.
- Brewer, M. B.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979, 86, 307-324.
- Brewer, M. B., Dull, V., & Lui, L. Perceptions of the elderly: Stereotypes of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1, 41, 656-670.
- Campbell, D. Stereotypes and the perception of group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1967, 22, 817-829.
- Crocker, J., Hannah, D. B., & Weber, R. Person memory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3, 44, 55-66.
- Einhorn, H. J., & Hogarth, R. M. Confidence in judgment: Persistence of the illusion of validity. *Psychological Review*, 1978, 85, 395-416.
- Grant, P. R., & Holmes, J. G. The integration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y schemas and stereotype imag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81, 44, 107-115.
- Grant, P. R., & Holmes, J. G. The influence of stereotypes in impression formation: A reply to Locksley, Hepburn, and Ortiz.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82, 45, 274-276.
- Gurwitz, S. B., & Dodge, K. A. Effects of confirmations and disconfirmations on stereotype-based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 35, 495-500.
- Hamilton, D. L. Cognitive biases in the perception of social groups. In I. S. Carroll & J. W. Payne (Eds.),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Hillsdale, N. J.: LEA, 1976.
- Hamilton, D. L.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 J.: LEA, 1981. (a)
- Hamilton, D. L. Illusory correlation as a basis for stereotyping.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 J.: LEA, 1981. (b)
- Kruglanski, A. W., & Freund, I. The freezing and unfreezing of lay-inference: Effects on impression primacy, ethnic stereotyping, and numerical anch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83, 19, 448-468.
- Kulik, J. A. Confirmatory attribution and the perpetuation of soci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3, 6, 1171-1181.
- Kelley, H. H., & Michela, J. L.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980, 31, 457-501.
- Locksley, A., Borgide, E., Brekke, N. & Hepburn, C. Sex stereotypes and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9, 821-831.
- Locksley, A., Hepburn, C., & Ortiz, V. Social stereotypes and judgments of individuals: An instance of the baserate fallac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82, 18, 23-42. (a)
- Locksley, A., Hepburn, C., & Ortiz, V. On the effects of social stereotypes on judgments of individuals: A comment on Grant and Holmes's "The integration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y schemas and stereotypic imag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82,

- Nisbett, R. E., Zukier, H., & Lemley, R. E. The dilution effect: Nondiagnostic information weakens the implications of diagnostic information. *Cognitive Psychology*, 1981, 13, 248-277.
- O'Sullivan, C. S., & Durso, F. T. Effect of schema incongruent information on memory for stereotypical attribu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4, 47, 55-70.
- Park, B., & Rothbart, M. Perception of out-group homogeneity and levels of social categorization: Memory for the subordinate attribut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2, 42, 1051-1068.
- Peabody, D. Group judgments in the Philippines: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10, 290-300.
- Pettigrew, T. F.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Extending Allport's cognitive analysi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6, 51-58.
- Popper, K. 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England: Hutchinson, 1959.
- Quattrone, G. A., & Jones, E. E. The perception of variability within in-groups and out-groups: Implications for the law of small nu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8, 141-152.
- Rothbart, M. Memory processes and social beliefs.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81.
- Rumelhart, D. E., & Norman, D. A. Accretion, tuning and restructuring: Three modes of learning. In J. W. Cotton & R. L. Klatzky (Eds.), *Semantic factors in cognition*.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8.
- Snyder, M. Seek, and ye shall find: Testing hypothesis about other people.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Hillsdale, N. J.: LEA, 1981.
- Snyder, M., & Campbell, B. H. Testing hypotheses about other people: The role of the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80, 6, 421-426.
- Snyder, M., Campbell, B. H., & Preston, E. Testing hypotheses about human nature: Assessing the accuracy of social stereotypes. *Social Cognition*, 1982, 1, 256-272.
- Snyder, M., & Cantor, N. Testing hypotheses about other people: The use of historical knowled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9, 15, 330-342.
- Snyder, M., & Swann, W. B. Jr.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Minnesota, 1977.
- Snyder, M., & Swann, W. B. Jr. Hypothesis-testing processe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8, 36, 1202-1212.
- Tajfel, H. Cognitive aspects of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1969, 25, 79-97.
- Taylor, S. E. A categorization approach to stereotyping.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 J.: LEA, 1981.
- Wason, P. C., & Johnson-Laird, P. N. *Psychology of reasoning: Structure and content*. London: D. T. Batsford, 1972.

- Weber, R., & Crocker, J. Cognitive processes in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3, **45**, 961-977.
- Wilder, D. A. Reduction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through individuation of the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8, **36**, 1361-1374.
- Wilder, D. A. *Predictions of belief homogeneity and similarity as a function of the salience of an outgroup following social categoriza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1980.
- Wilder, D. A. Perceiving persons as a group: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relations.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ABSTRACT

Change of Stereotypic Belief: A Cognitive Analysis

Lee, Jin-Hwan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some recent experimental researches which explored the factors or processes underlying the change of stereotypic belief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were reviewed. There was only one research(Weber & Crocker, 1983) which directly investigated the cognitive processes underlying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was found that subjects' self-presentational concerns could solicit the equal opportunity strategy for gathering-evidence in stereotype-testing activities. Individuation of group members could reduce the influence of stereotype on our impression and judgment about individual group members. And Weber & Crocker(1983)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Bookkeeping model(e.g., Rothbart, 1981) and Subtyping model (e.g., Taylor, 1981) were to be applicable to the understanding of cognitive processes underlying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It was suggested that sequences in the processes of change of stereotypic beliefs be further explored. Such a sequence as "disconfirmatory evidences (or other relevant factors)—change in the perception of outgroup-homogeneity—change of stereotypic beliefs" was proposed as one of probable sequences.